전남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대상

개인 부문서도 최우수상·장려상 수상하며 두각
"전남 산림연구 100년…신품종 개발·육성 노력"

전남산림자원연구소가 최근 제32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서 대통령상인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산림자원연구소가 최근 6일 간 충남 보령에서 개최된 산림청 주관 제32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서 대통령상인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전남도는 무궁화 전국 축제에 70점의 분화를 출품해 광역 시·도가 참여한 단체 부문과 개인 부문 모두 최고상을 휩쓸었다. 단체 부문 대상을 비롯해 개인 부문에서도 함평 정천수씨가 농수산부장관상인 최우수상을, 나주 김의훈씨가 산림청장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무궁화 품평회는 전국 17개 시·도와 전국무궁화생산자연합회에서 출품한 대표분화 1천200점이 경쟁을 벌였으며 작품성, 관리성, 심미성, 참여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가 이뤄졌다. 특히 전남이 출품한 분화는 현장에서 실시된 시민평가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했다.

전남도는 이번 대상 수상으로 2020년 은상, 2021년 은상 등 3년 연속 수상의 금자탑을 쌓았으며 전국 최고의 무궁화 분화 육성과 품종 관리의 높은 수준을 다시 한번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품평회 성과는 무궁화의 저변 확대와 품질 향상을 위해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추진한 무궁화에 대한 재배 시기 별 관리방법 체계화, 시·군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무궁화 재배·관리 컨설팅' 등이 한몫했다는 평이다.

이번 무궁화 전국축제는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리고 있는 '2022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됐다. 이에 산림자원연구소는 전국에서 모인 여름 피서객을 대상으로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한 지역대표 풍경사진, 여행토퍼, 홍보영상 전시 등에 나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관광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오득실 산림자원연구소장은 "전남의 산림 연구가 100년을 맞이한 올해 대통령상을 수상해 더욱 뜻깊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로 무궁화 신품종을 개발과 육성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자원연구소는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친근한 꽃, 사랑받는 무궁화'를 주제로 무궁화 특별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

전남농협, '새농민像 본상' 3부부 시상

장성 고광현·정향자 부부
장흥 김종기·김명자 부부
진도 정희재·박예덕 부부

고광현

정향자

김종기

김명자

정희재

박예덕

농협전남지역본부는 17일 "농협중앙회 주관 '제57회 새농민상(像) 본상' 수상자로 월정농장 고광현·정향자 부부(장성군 삼계면), 하나리농장 김종기·김명자 부부(장흥군 대덕읍), 아리랑농장 정희재·박예덕 부부(진도군 진도읍)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새농민상 본상'은 농협중앙회에서 매달 우수 선도농업인에게 수여하고 있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 중 매년 1회(20부부 내외) 최고의 농업인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으며 정부포상 또한 함께 이뤄지고 있다.

고광현·정향자 부부는 버섯농사를 시작으로 30여년 간 농축업에 종사해왔다. 현재 한우 180두 사육과 조사료 재배를 병행하고 있는 복합영농인이다.

2009년 4월 '이달의 새농민상'에 선정됐으며 장성군 한우협회 회장, 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 대의원, 삼계면 한우작목반 활동을 통해 한우사육농가의 권익 신장과 생산성 향상에 앞장서 왔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방문 봉사 정기 실시 등 이웃사랑 실천에도 앞장서 지역 내 모범농가로 평가받고 있다.

김종기·김명자 부부는 수도작과 한우 사육을 병행하고 있는 45년 경력의 복합영농인으로 2006년 6월 '이달의 새농민상'에 선정됐다.

농업 관련 교육 이수, 선진농업 기술의 선제 도입으로 지역 내 복합영농에 선두주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이끄는 선도농업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희재·박예덕 부부는 1986년 귀농해 현재 수도작과 대파농사에 종사하고 있다. 2018년 6월 '이달의 새농민상'에 선정됐으며 지역 내 청년귀농인 멘토 역할 수행 등 후계농업인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영농규모화와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자립경영을 달성했다. 부부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선도농업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박서홍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새농민상 본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농업인의 농업 경영과 기술 개선을 위해 앞장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서창농협, 고령 농업인 복달임 행사

서창농협은 17일 "최근 관내 서구 세하2동 경로당에서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복달임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매년 조합원과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서창농협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지친 어르신들을 위해 관내 경로당, 아파트 경로당 80여곳에 과일, 떡, 통닭, 음료 등 복달임 음식을 전달했다.

이날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은 모처럼 음식을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갖고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 준 서창농협에 고마움을 표했다.

김명열 서창농협 조합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복달임 행사를 통해 조합원과 지역 내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전남농협, 추석 대비 식품안전 특별점검 농협전남지역본부는 17일부터 추석 명절 전까지를 식품안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전남 관내 400여개의 농협하나로마트 판매장을 중점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식품안전 위생관리,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지침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임곡농협, 드론항공방제 지원

임곡농협은 17일 "최근 벼 재배 농가의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해 드론방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60개의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103ha 면적에 1차 방제작업을 완료한 임곡농협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2차 방제작업을 신속히 진행해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재만 임곡농협 조합장은 "9월 중 3차 방제작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드론방제 사업을 확대해 영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道농기원, 양봉농가 꿀벌응애류 철저한 방제 당부

"이달 내 응애 밀도 낮춰야"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월동기 꿀벌 폐사의 복합요인 중 하나인 꿀벌응애류의 밀도 감소를 위해 양봉농가의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올해 초 전남도 피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벌통 약 10만개(전체 봉군의 약 40%)에서 꿀벌 폐사와 소실 피해가 발생했고 농촌진흥청 민·관 합동 조사 결과, 꿀벌응애류, 말벌류 피해와 이상 기상의 복합적인 작용이 주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응애가 벌통 안에서 기생하면서 기형성충 유발, 발육 저해, 수명 감소 등으로 양봉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바이러스병 매개에 따른 세력 감소로 심한 경우 봉군 폐사에 이르게 하는 등 월동 전 응애의 밀도 증가로 벌이 약해지면서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꿀벌 응애는 6월부터 증식하기 시작해 집중 산란 시기인 9월에 밀도가 가장 높아지기 때문에 8월 안에 철저한 방제로 밀도를 최대한 낮춰 월동 전 건강한 봉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박관수 기술보급과장은 "월동 꿀벌의 폐사를 막기 위해서는 원인 병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봉농가에 대한 현장 기술 지원을 통해 안정 생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우럭조개류 인공종자 방류

해양수산과학원, 패류 자원조성 본격화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17일 "전남도 이매패류 자원 조성을 위해 자체 생산한 우럭조개와 새조개 인공종자 30만 마리를 자연서식지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비부착성 이매패류의 경우 자연서식 개체의 채취에 의존해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방식은 어미자원의 지속적인 남획·자원량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부착성 이매패류 양식 확대·자원 조성을 위해 인공종자 방류를 통한 자원 증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지난해 우럭조개와 가리맛조개 3-5㎜ 종자 60만 마리 방류를 시작으로 줄어든 연안 패류자원의 증강을 위해 지속적인 방류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는 종자 방류 효과 향상을 위해 우럭조개 1㎝ 치패 21만 마리를 여수시 돌산읍 금천·항대·평사지선에 방류했으며 6만 마리는 여수시 화양면 수문지선에 추가 방류하고 새조개 1㎝ 치패 3만 마리는 여수시 백야도지선에 방류할 계획이다.

박준택 전남해양수산과학원장은 "전남도의 고소득 이매패류 자원 조성을 위해 지역특산 고부가가치 패류 종자생산 기술 확보는 물론 방류 추진에도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